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오 인 범

2020년 8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남진열

오인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오인범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8월

The Effects of Social Workers'
Lifestyle and Burden on Parents' Support
in Jeju on Preparation for Older Age

In-Beom Oh

(Supervised by professor Chin-yeol Na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4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복지사 6
- 2. 라이프스타일 10
- 3. 부모부양부담 14
- 4. 노후준비도 16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22
- 2. 연구대상 및 분석 24
- 3. 측정도구 25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 통계적 특성 28
-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30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집단 간 차이분석 31
- 4.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47
- 5.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49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55
2. 제언 및 논의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6

<부록> 설문지 69

표 목 차

<표 1> 2019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적통계	6
<표 2> 직업중분류별 평균소득(연봉) 수준	8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27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30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분석	32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34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의 차이분석	38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40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분석	43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 변인간의 차이분석...	45
<표 1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48
<표 13>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50
<표 14>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신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52
<표 15>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54

그림 목차

[그림 1] 18~28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망	7
[그림 2] 노후준비서비스 4대 영역	17
[그림 3] 연구모형	22

<국문초록>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오 인 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은 여러 사회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을 선정하였고,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 동안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표본으로서 가치가 의심되는 6부를 제외한 3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 학력, 월 가계수입, 혼인상태, 부양부모유무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변인 건강, 여가문화, 동료관계, 종교 및 봉사활동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주성과 최수일(2010), 최혜련(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부모부양부담에 따른 노후준비도와 의 요인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미약하거나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혜성·김미영, 2012; 정규형·박서영, 2014)와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노동을 하는 제주의 문화가 부모부양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준비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부모부양부담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미약한 영향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라이프스타일, 부모부양부담, 노후준비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6년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10년 전인 2007년 79.2세 보다 3.5세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연장될 것이다(통계청, 2019).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구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인간 수명연장으로 노년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¹⁾는 “미래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령사회의 위험성과 사회적 부담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19년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20.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생산 가능인구 4.9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5년에는 기존의 5배가 증가하여 노년부양비가 100.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9).

한국사회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2019년 노령화 지수는 119.4명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는 현재의 5배 수준인 576.6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은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의 증가는 부모부양부담을 가중시켜 자신의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 피터 페르디난드 드러커(영어: Peter Ferdinand Drucker, 1909년 11월 19일 ~ 2005년 11월 11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로 스스로는 “사회생태학자(social ecologist)”라고 불렀다. 주로 어떻게 인간이 사업과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조직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출처: 구글 위키백과)

우리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탈피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2015년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노후준비지원법은 많은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저출산의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여 인구와 재정절벽이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선권, 2017).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부모부양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2006년 63.4%, 2010년 36.0%, 2018년 26.7% 등으로 줄어들었다(보건복지포럼, 2019). 핵가족 및 1인 가구, 가족해체 등 가족의 구조 변화로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가족내에서 부모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또는 국가, 사회에서 부양을 책임지는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김유경, 2019).

짧은 시간에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년기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 등 다양한 ‘노후보장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에 대한 문제는 개인 및 가족, 국가가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년기 성인들은 가족이나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유신, 2005).

과거 ‘장수(長壽)’의 의미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Living longer)이었다면 현재는 그것을 넘어서 잘 사는 것(Living well)으로 바뀌었다. 막연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늙어가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경란 외, 2002).

라이프스타일은 인간의 생활의식이나 가치관, 성격 등의 복합물로서 노년층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생활을 측

정하는 변수로서, 개인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가족생애주기와 같은 개인이나 가구의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에 의해 노후준비가 변화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 결정되는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노후준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김수미·황덕순, 2017).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령화로 수요가 624천명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 대분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보건업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업자 증감 수가 2013~2018년에는 481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초고령사회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하지만 모순적으로 ‘2017 한국의 직업정보’에 의하면 직업군별 소득비교에서 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2,500만원), ‘경비 및 청소관련직’(2,500만원), ‘음식 서비스관련직’(2,700만원) 순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증가하였지만 낮은 임금은 세대주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는 어렵고, 빈곤과 가족해체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직업 분야에 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 저하, 높은 이직률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변용찬 외, 2010).

사회복지사들의 노후는 노년기에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사회복지사들의 노후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이지만 사회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예비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대의 상황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 정도와 노년기에 대한 견해, 노후준비의 의식수준, 성공적인 노화 인식의 정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박지선, 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 인식과 실태에 관한 몇몇 시사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사회복지사들의 노후준비 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노후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표, 2005).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과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혼인 상태, 학력, 직종과 직급, 이직, 퇴직금 제도가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이춘희,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사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노동을 하는 문화, 장수의 섬 ‘제주’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를 살펴보

고,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현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가족 등에게 야기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사회과학 및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사회복지제도 발전 및 예산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수적 팽창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이춘희, 2008). <표 1>은 2019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적통계가 약110만명이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2019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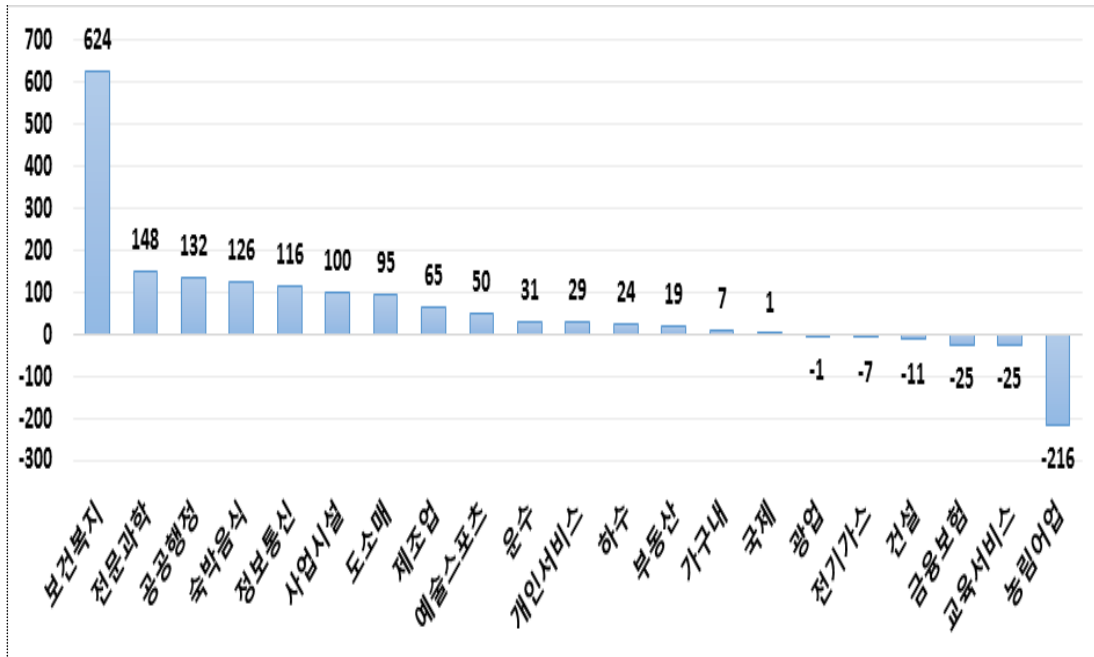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1급	2급	3급	총계
발급 현황	153,866	939,688	13,565	1,107,119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그림 1>은 한국고용정보원(2019)에서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령화로 수요가 624천명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단위: 천명)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그림 1] 18~28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망

산업 대분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보건업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업자 증감 수가 2013~2018년에는 481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른 산업들은 취업이 감소하는데 반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소폭이 작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 관련 인력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는 ‘2017 한국의 직업정보’ 중 직업 분류별 평균소득(연봉) 수준이다. 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2,500만원), ‘경비 및 청소관련직’(2,500만원), ‘음식 서비스관련직’(2,700만원) 순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표 2> 직업 분류별 평균소득(연봉) 수준

(단위: 만원)

구분	하위(25%)	중위(50%)	상위(75%)
전체 평균	2,800	3,600	4,80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000	2,500	3,000
경비 및 청소관련직	1,995	2,500	3,000
음식 서비스관련직	2,000	2,700	3,50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18), 「2017 한국의 직업정보」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매우 낮고,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물론 퇴직연금의 금액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 많은 업무량, 장시간 노동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고, 근로환경이나 직무환경 등은 좀처럼 개선되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김연선, 2015).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처우 및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 등은 사회복지의 중요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정책 등으로 인해 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장대일, 2018).

2)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

박지선(2004)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절반 이상(53.8%)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준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의식에서는 4점 기준에 평균 3.47점으로 높은 노후준비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노후준비 의식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이 노후준비 수준도 높았다.

김정표(2005)는 노년준비 의식이 노년준비 실태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였는데 노년준비 의식이 높을수록 노년준비 실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가 다른 영역(심리적, 신체적)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준비는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춘희(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직할 의사가 없고,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경우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노후준비 의식이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노후준비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재원(2012)의 연구에서는 직종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타 직종에 비해 모든 영역(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에서 낮은 노후준비 수준을 보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 없는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류성봉(2013)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후준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노후준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누가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주로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48.3%, ‘본인이 전적으로’가 37.0%로 나타났다. 주현우(2014)의 연구에서는 기혼, 관리직, 정규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전체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연선(2015)은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노후생활인식과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간의 노후준비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공사회복지사가 민간사회복지사 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사회복지사

와 민간사회복지사 노후준비 수준은 보통수준으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일(2018)은 노후준비 인식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노후준비 실태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가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인 면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라이프스타일

1) 라이프스타일 개념

사회학자 Max Weber와 정신분석학자 Alfred Adler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등장하였다. Marx Weber(1968)는 사회계층을 경제적 관계, 특히 생산체제로의 참여형태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여, 계급(class)외에 지위그룹(status group)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지위그룹은 재화의 소비양식, 직업, 자녀양육과 교육의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계층이고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 등의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Weber의 저서에서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Lebenfubrung(인생관)”이 쓰이고 있거나 또는 “Lebensansbaug(생활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생활의 독특한 양식 또는 그것의 단편적이고 특징적인 생활방법과 관련된 행위의 정체나 시간과 에너지의 배분과 관련된 개념 등으로 정의되었다(Weber, 1968: 박문환, 1998 재인용).

Adler(1969)는 라이프스타일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소비하는 양식으로,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체계와 관심, 신념 등이 통합된 것으로 내적, 외적 환경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로써 과거 생

활양식에 대한 대처경험과 문제의 해결방법, 미래에 대한 노력에서 보이는 일관성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정의 하였다(Adler, 1969: 김민정, 2012 재인용).

Feldman와 Thielbar(1975)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의 애매함을 인정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한 사회 집단속에서 개별적인 사람의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나의 집단형성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의 여러 측면(일·놀이·학교·가족·교회)에서 여러 영역으로 침투해 간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라이프스타일은 사회계층, 민족적-종교적 배경, 직업적 특성, 관여도, 사회적 문화적 관계, 특정한 직업 상황, 가족생활주기, 성, 연령을 나타내는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묘사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라이프스타일을 통하여 일과 가족 그리고 집단이 관심을 통합하고 있다고 간주된다(Feldman & Thielbar, 1975: 최혜련, 2012 재인용).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이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 각기 다른 학문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전체 사회, 개인, 가족, 특정계층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 실제적 행동 등이 통합된 체제로서 개인의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의 영향을 받아 학습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이 확대되어 살아가는 방법과 소비의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생활양식’이라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생활의식이나 행동 등에 의해 형성되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더 구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생활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Moschis et al., 1997: 김수미 · 황덕순, 2017 재인용).

서성환(1986)은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사회·심리적 차이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형태를 의미로 정의하였다. 고영준(2008)은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특정한 반응에 대한 태도, 가치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외부 혹은 내부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양식이라고 하였다. 곽중형(2008)은 라이프스타일을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개인의 태도나 신념, 관심 및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활 패턴으로 정의 하였다. 김주성과 최수일(2010)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노년층을 구별 짓는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측정하거나,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구하였다. 노년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라이프스타일은 ‘일생동안 경험하는 개인의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이 통합된 양식으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도와 연관성을 확인하겠다.

2)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분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 Neugarten(1968)은 노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응방식을 기준으로 8개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Bartos(1980)는 인감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연령만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 배우자 사망과 같은 외부변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는 시간, 돈, 건강 등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기초로 하여 풍족활동형, 가정생활형, 활동은퇴형, 생계곤란형, 건강악화형, 기타 등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Neugarten, 1968, Bartos, 1980: 김미리, 2013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인구의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다. 라이프스타일 구분을 통해 노인들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실버산업의 등장과 함께 노인들을 소비자 계층으로 인식한 비즈니스가 함께 연구되었다(박민아, 1997; 박정희, 1997; 고희원, 2000; 박재현, 2001; 이성희, 2000; 이정민, 2000).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시장세분화 연구를 실시한 이의훈과 신주영(2002)은 노년층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안전지향형, 물질추구형, 소극적 생활형, 성취도전형, 유행 및 건강 추구형의 5가지로 구분하여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였다. 최수일과 곽종형(2007)은 가족을 중시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노인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버세대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이나 스포츠 레저활동, 여가생활 등을 포함하는 건강 및 여가추구,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고, 집 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 도전추구, 재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의 물질적인 소유물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안전 및 물질추구, 나를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보수적 가족추구로 구분하였다.

고정옥과 김정숙(2009)의 중년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은 가족중심형, 절약추구형, 정보추구형, 적극활동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고영준(2008)은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새롭고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는 혁신적 생활, 주변 사람과의 화합과 친목 등을 포함하는 화합형 생활, 스포츠, 공연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여가형 생활로 분류하였다. 여미영(2009)은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독립형, 생활편의형, 생활무관심형, 생활계획형으로 분류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주성(2010)은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 및 여가추구, 외향적 도전추구, 안전 및 물질추구, 보수적 가족추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함영희(2011)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취미 및 여가생활, 가족관계, 종교 활동, 동료관계, 식생활, 건강관리, 주거생활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활동영역을 구분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건강추구, 여가문화추구, 외향적 도전추구, 안전 및 물질추구, 보수적 가족추구, 동료관계 추구, 종교 및 봉사활동추구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에 사용하겠다.

3. 부모부양부담

Caplan and Killilea(1976)는 부양을 인적·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사회적지지 관계로 접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양에 필요한 자원과 정서적 지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피부양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양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Caplan and Killilea, 1976: 서소용·김명자, 1998 재인용).

부양(扶養)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추용(2004)은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정창수(2009)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혹은 비동거 형태로 필요한 자원 제공과 정서적 지원,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도움, 이동 시 도움 등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양은 양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로 시각에서의 접근과 인적·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사회적지지 관계와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양이란 자기 스스로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유경, 2019).

부양이란 노부모에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비롯한 일체의 도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노후생활에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다(신수진, 1993). 과거에는 주로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졌지만, 시대의 변화로 출생순위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책임감과 무관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장년기 가구주들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 기간은 당분간 단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혜선·박효진, 2016).

전국의 2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생존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모를 부양한 비율은 56.7%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부모 부양으로 인한 월평균 지출액은 34만 8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18.3%, 30대는 52.8%, 40대는 71.1%, 50대는 79.

3%, 60대는 71.0%가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었으며, 40대~60대의 부모 부양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은 34.6%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김유경, 2019). 이와 같이 부모 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이 가족에게 부양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 방안으로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친족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뜻으로 반드시 그 대상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더라도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김미혜 외, 2006).

일반적으로 부양은 부양주체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부양은 공적부조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사적 부양은 개인이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부양주체가 되어 개인적 차원 혹은 가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양을 의미한다(이은혜, 2020).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다양한 측면 즉,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유발되며 이를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이라 한다. 부양자들의 부정적인 경험과정과 부양과정의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부양부담은 단순히 쇠약한 노인 또는 가족을 돌보는 부양자가 겪고 있는 긴장감이나 불편함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희경,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모부양을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양부모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노후준비도

노후준비도란 노후에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마련하고 갖추어 앞으로 있을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과 질병, 무위와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신기·조성숙, 2013)

박창제(2008)는 노후준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최혜련(2012)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노년기에 다다르기 전에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포괄적인 준비행위를 노후준비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라고 정의하였다. 노후준비지원법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재무영역에는 맞춤형 재무설계,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건강영역은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이해 및 관리(해소)를 포함한다.

셋째, 여가영역은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넷째, 대인관계 영역은 가족, 친구, 이웃과 건강한 소통방법, 지역사회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그림 2] 노후준비서비스 4대 영역

노후준비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기 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노후준비도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위변수는 크게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노후준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현식, 2012; 최혜련, 2012; 장은하, 2014; 진주영·하규수, 2016; 서정숙, 2017; 이남·한정란, 2017).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하위변수를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건강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과 직결되며, 사회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가중, 부양문제, 노동력 등과 연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정순돌 외, 2015).

김유정과 김금순(2004)은 노년기의 건강악화는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며, 만성질환 발생은 사회적·심리적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의 상실은 노동력의 상실을 동반하게 되므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활동범위의 제한 및 축소 고독, 무위, 소외, 무력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나아가 정신적 노화를 수반하고 다양한 정신기능에 퇴화를 가져오게 되고, 노후생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김영남(2015)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개념의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질병으로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정의하였다.

건강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인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 인간다움 삶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게 있어 건강은 신체적인 독립을 유지시키며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다. 신체적 건강은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내면의 건강과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통합하는데 기여한다(최성재·장인협, 2010).

반대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건강악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시킨다. 이러한 활동 제한은 운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감소시켜 소외감 및 고독감과 무력감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년, 2015). 신체적 노후준비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년기의 요인과 관련하여 생활양식 및 습관, 유전적 원인, 환경적 요인 및 의료서비스 체계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양한 원인과 복합작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심리 및 사회적 기능수준까지 감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면서 정상적인 과정도 병리적 과정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사망까지 하게 된다(권중돈, 2004).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년기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 상태를 신체적 노후준비로 인식하고자 한다.

2) 경제적 노후준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경제적 문제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은퇴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나 가족, 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경제적 노후준비라고 하겠다(김주성·최수일, 2010).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노후준비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년기에 소득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생활비 등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유지연, 2016). 소득이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다가오는 노년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노년기의 개인적 건강이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 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주거환경 등을 결정하는 문제들은 경제적 문제에 의해 결정된다(김익균 외, 2008).

노후의 경제력을 갖춘다면 건강유지는 물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모든 영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김동배·정규형·이은진, 2012). 경제적 노후준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및 주거환경의 원천이며, 사회참여 및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다. 더불어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후준비에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된다(정주원·조소연, 2015).

경제적 노후준비 방식에는 공적 노후준비와 사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였다. 공적 노후준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수단이 있고, 사적 노후준비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나 부동산, 저축, 보험 등의 사적 소득과 자녀와 친척 등 비공식적 지지망에서의 사적 이전소득 등이 있다(이기성, 2005).

임종호와 권미자(2016)는 경제적 노후준비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고, 신체적

노후준비와 심리·사회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경제적 노후준비는 선결조건이라고 하였다. 박성준(2016)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 보장이 낮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절실하며, 노후를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년기에 국가나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태를 경제적 노후준비로 인식하고자 한다.

3) 심리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준비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가운데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를 신체적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를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노후의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까지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 되어왔던 것이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였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 및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노후의 전 영역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사회관계 및 활동, 여가 등에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강성욱·하규수, 2013).

정주원과 조소연(2015)은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노년기 심리적 상실감과 사회적 고립은 노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해영(2006)은 인간을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정미경(2019)은 노년기 사회적 상황 변화는 사회적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의 변화, 퇴직, 배우자 사망 및 자녀의 독립 등이 심리·사회적 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오병철(2012)은 심리적 노화라는 것은 인지기능, 정서기능, 정신기능, 성격 등 내적 심리 측면과 외적 심리 측면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퇴행 또는 유지 및 성숙을 동시에 내포하는 심리적 조절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자녀들의 출가나 독립 등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는 빈둥지가구(empty nest)시기로 우울을 경험하고, 퇴직과 사회적 권위상실, 배우자 또는 친구의 죽음, 가장으로서의 역할상실 등으로 소외감이나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부터 직장동료, 가족, 친구, 친지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박주선, 2007).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후준비분야는 ‘심리·사회적 노후준비’이며 역할상실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 감소, 대인관계 축소, 고독감이나 우울, 자존감 하락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진주영·하규수, 2016). 노년기에 삶의 구조화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기를 찾고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정서적 유대의 상호작용 대상과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준비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원만한 사회관계망 유지와 더불어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혜련, 2012).

이정화(2009)는 심리·사회적 노후준비는 심리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 심리·사회적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은혜(2020)는 인간은 연령증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의 중년기에 이루어 놓은 과업이나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는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 은퇴 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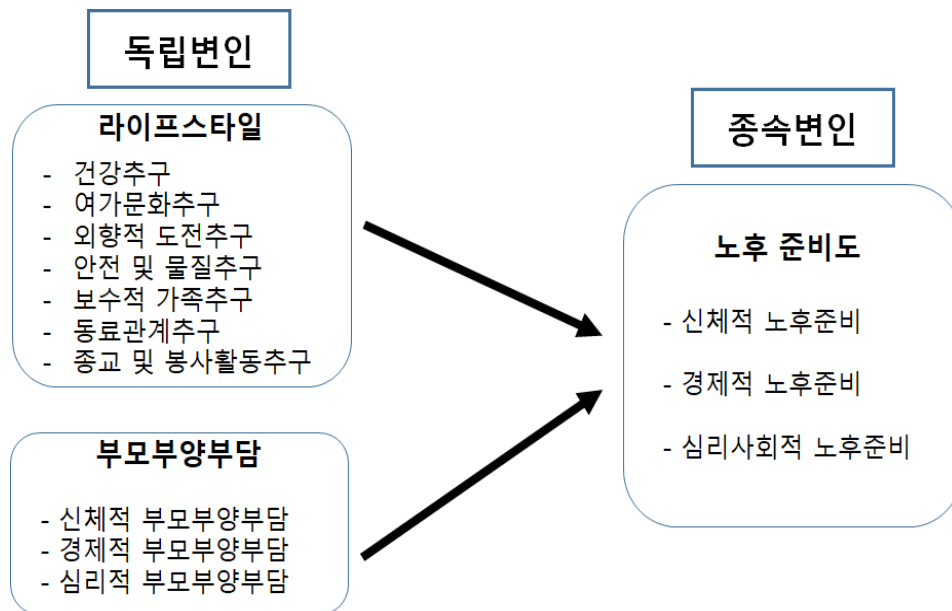
심리·사회적 노후준비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삶의 지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과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로 인한 상실된 역할을 대신할 만한 여가 및 취미생활, 종교, 자원봉사, 교육, 일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양해술·홍석태, 2008).

본 연구에서 노년기 사회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심리·사회적 영역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와 지속적인 대인관계 유지는 성공적인 노후에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 통제변수 :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월 가계수입, 혼인유무, 부양부모 유무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개인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증가는 부모부양부담을 가중시켜 자신의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래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후복지가 염려가 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추론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경제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신체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심리사회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라이프스타일은 신체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라이프스타일은 심리사회적 측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는 부모부양부담에 따라 노후준비도에 영향 미칠 것이다.

- 3-1. 부모부양부담은 경제적 측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부모부양부담은 신체적 측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부모부양부담은 심리사회적 측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 선정 및 표집 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중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고, 340부를 배포하였으나 표본으로서 가치가 의심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각 요인별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간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s 상관관계 계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종속변인인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도와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7문항, 라이프스타일 30문항, 부모부양부담 18문항, 노후준비도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최수일·곽종형(2007), 김주성과 최수일(2010), 여미영(2009), 이의훈과 신주영(2004), 함영희(2011), 최혜련(2012) 등의 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 하였다. 건강추구 5문항, 여가문화추구 4문항, 외향적 도전추구 3문항, 안전 및 물질추구 3문항, 보수적 가족추구 5문항, 동료관계추구 5문항, 종교 및 봉사활동추구 5문항을 포함한 총 30문항을 5점 Likert척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라이프스타일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14로 나타났다.

2) 부모부양부담

부양부담척도는 Zarit의 부양부담 척도(Burden, Interview, BI)는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Zarit, Reever and Bach Pererson(1980)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치매 환자 가족들을 집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1980년에 29개 항목의 부양부담 측정 척도를 처음 발표하였다. 이후 1985년 22개 항목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Zarit, Orr and Zarit, 1985), 윤가현(1998)은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였다.

윤가현(1998)이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경제적 부양부담 6문항, 신체적 부양부담 6문항, 심리사회적 부양부담 6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경제적 부양부담은 경제적 지원 요구,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가계부담, 매월 경제적 지원 의향, 의료비 지원,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경제적 부양부담 등이 해당된다. 신체적 부양

부담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부양의식, 신체적 문제 시 거동 도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부모님의 부양에 의존, 신체적 부양부담 등이 포함된다. 심리사회적 부양부담은 부양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부양의 지속, 정서적 부양부담 등의 질문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긍정적 부양부담 4문항과 부정적 부양부담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부양부담 14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는 역환산하여 처리하였고 평균값을 분석해서 활용하였다. 부모부양부담은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부모부양부담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919로 나타났다.

3) 노후준비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노후준비도 척도는 김윤정·최윤희(2004)가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신체적 노후준비 7문항, 심리사회적 노후준비 7문항, 경제적 노후준비 7문항의 총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Likert척도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고, 그 평균값을 분석에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도에 대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59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도의 각 영역에 대해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 노후준비를 파악하기 위해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과식 및 지방 당분 섭취 조절 등의 건강한 식습관, 음주 및 흡연, 건강진단, 운동, 체중관리, 휴식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781이었다.

(2)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하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노후대책보험, 노후준비를 위한 보험 및 저축, 부동산 투자, 절약, 노후 생활비 해결,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 취미 및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력 등을 질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778이었다.

(3) 심리사회적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노후수준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사회적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의 대화 노력, 이야기 상대, 스트레스 관리, 친구모임 참여 노력, 자기개발, 고독 극복 노력, 취미생활 준비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노화수준의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745이었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독립 변인	건강	1~5	5	.657	
	여가문화	6~9	4	.816	
	외향적도전	10~12	3	.660	
	라이프 스타일	물질	13~15	3	.720
	보수적가족	16~20	5	.764	
	동료관계	21~25	5	.791	
	종교 및 봉사활동	26~30	5	.827	
	계	1~30	30	.814	
부모 부양 부담	경제적	1,5,6,8,9,16	6	.771	
	신체적	2,3,7,10,11,12	6	.771	
	심리사회적	4,13,14,15,17,18	6	.898	
	계	1~18	18	.919	
종속 변인	노후 준비	신체적	1~7	7	.781
	심리사회적	8~14	7	.745	
	경제적	15~21	7	.778	
	계	1~21	21	.859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통계적 특성

추출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본의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09명(34.7%), ‘여자’ 205명(65.3%)이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48명(15.3%), ‘30세 이상 39세 미만’은 101명(32.2%), ‘40세 이상 49세 미만’은 111명(35.4%), ‘50세 이상’은 54명(17.1%)이다.

학력은 ‘대학졸업 이하’ 243명(77.4%), ‘대학원 졸업 이상’ 71명(22.6%)이다. 종교는 ‘없음’이 164명(52.2%), ‘있음’이 150명(47.8%)이다. 월 가계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7명(1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08명(3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62명(19.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44명(14.0%), ‘500만원 이상’은 63명(20.1%) 순서로 응답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123명(39.2%), ‘기혼’은 191명(60.8%), 부양부모유무는 ‘없다’는 응답이 149명(47.5%), ‘있다’는 응답이 165명(52.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통계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 응답비율이 2배가 높았고, 연령은 ‘40세 이상 49세 미만’이 111명(35.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력에서는 ‘대학졸업 이하’가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3배가 넘게 응답하였고, 월 가계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보다 ‘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배가 더 많았고, 부양부모 유무에서는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9	34.7
	여자	205	65.3
	계	314	100.0
연령	30세 미만	48	15.3
	30세 이상 ~ 39세 미만	101	32.2
	40세 이상 ~ 49세 미만	111	35.4
	50세 이상	54	17.1
	계	314	100.0
학력	대학 졸업 이하(전문대학 포함)	243	77.4
	대학원 졸업 이상	71	22.6
	계	314	100.0
종교	없음	164	52.2
	있음	150	47.8
	계	314	100.0
월 가계수입	200만원 미만	37	11.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8	34.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2	19.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4	14.0
	500만원 이상	63	20.1
	계	314	100.0
혼인상태	미혼	123	39.2
	기혼	191	60.8
	계	314	100.0
부양부모 유무	없음	149	47.5
	있음	165	52.5
	계	314	100.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부모부양부담, 노후준비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은 건강, 여가문화, 물질에서 보통 수준의 응답을 하였고, 외향적 도전과 보수적 가족, 동료관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종교 및 봉사활동에서는 보통 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사의 부모부양에서는 신체적 부분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심리사회적 부분에서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 수준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부분에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변인	척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 변인	라이프 스타일	건강	314	1.60	5.00	3.48	.61
		여가문화	314	1.00	5.00	3.48	.73
		외향적도전	314	2.00	5.00	3.76	.65
		물질	314	1.33	5.00	3.51	.68
		보수적 가족	314	1.80	5.00	3.69	.59
		동료관계	314	1.80	5.00	3.60	.54
		종교 및 봉사활동	314	1.00	5.00	2.35	.86
	부모 부양 부담	경제적	314	1.17	5.00	3.13	.67
		신체적	314	1.33	5.00	3.65	.66
		심리사회적	314	1.00	5.00	3.42	.81
종속 변인	노후 준비도	신체적	314	1.57	5.00	3.09	.64
		심리사회적	314	1.57	5.00	3.42	.55
		경제적	314	1.14	5.00	3.13	.6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집단 간 차이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월 가계수입, 혼인상태, 부모부양 유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부양부모부담,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사회복지사의 성별, 연령, 부양부모유무는 통계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학력에서 대학원졸업 이상이라고 한 응답이 평균 3.470점, 대학교졸업 이하라고 한 응답이 평균 3.35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중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라이프스타일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2.329, p<.05$).

사회복지사의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3.475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라이프스타일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4.474, p<.001$).

월 가계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평균이 3.229점,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평균이 3.41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월 가계수입에서 5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집단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라이프스타일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3.382, p<.05$).

혼인상태에서 기혼이라고 응답한 평균이 3.421점, 미혼이라고 응답한 평균이 3.325점으로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사의 혼인상태에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기혼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라이프스타일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2.332, p<.05$).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표본수	라이프스타일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389	.345	.195	.845	
	여자	205	3.381	.366			
연령	30세 미만	48	3.282	.318	1.638	.180	
	30~39세	101	3.385	.335			
	40~49세	111	3.411	.368			
	50세 이상	54	3.414	.403			
학력	대학 졸업 이하	243	3.358	.351	-2.329*	.021	
	대학원 졸업 이상	71	3.470	.372			
종교	없음	164	3.299	.328	-4.474***	.000	
	있음	150	3.475	.367			
월 가계 수입	200 미만(a)	37	3.229	.287	3.382*	.010	a,d<b,e,c
	200~300 미만(b)	108	3.386	.362			
	300~400 미만(c)	62	3.481	.365			
	400~500 미만(d)	44	3.324	.319			
	500 이상(e)	63	3.415	.381			
혼인 상태	미혼	123	3.325	.363	-2.332*	.020	
	기혼	191	3.421	.351			
부양 부모	없음	149	3.364	.366	-.923	.357	
	있음	165	3.401	.351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표 7>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물질($t=2.738, p<.01$)과 보수적가족($t=3.368, p<.01$)에 대한 응답이 여자 집단보다 남자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건강($F=5.644, p<.01$)에 대한 응답이 30세 미만 집단보다 50세 이상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수적 가족($F=4.453, p<.01$)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30세 이상 39세 미만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 및 봉사활동($F=9.250, p<.001$)에 대한 응답이 30세 미만 집단보다 50세 이상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건강($t=-2.230, p<.05$), 종교 및 봉사활동($t=-12.066, p<.001$)에 대한 응답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월 가계수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건강($F=3.995, p<.01$)에 대한 응답이 200만원 미만 집단보다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가문화($F=5.235, p<.001$)에 대한 응답에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수적 가족($F=3.965, p<.01$), 동료 관계($F=4.086, p<.01$)에 대한 응답에서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 및 봉사활동($F=2.400, p<.05$)에 대한 응답에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건강($t=-3.238, p<.01$)에 대한 응답 중 미혼 집단보다 기혼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가문화($t=4.225, p<.001$)에 대한 응답에서는 기혼집단 보다 미혼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종교 및 봉사활동($t=-2.899, p<.01$)에 대한 응답에서는 미혼 집단보다 기혼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n	라이프스타일									
			건강					여가문화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526	.631	.789	.431		3.408	.780	-1.402	.162	
	여자	205	3.469	.603				3.530	.710			
연령	30세 미만(a)	48	3.208	.617	5.644**	.001	a<b,c,d	3.692	.690	2.473	.062	
	30~39세(b)	101	3.540	.544				3.537	.724			
	40~49세(c)	111	3.470	.648				3.432	.757			
	50세 이상(d)	54	3.681	.576				3.328	.723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447	.599	-2.230*	.026		3.475	.739	-.567	.571	
	대학원졸업 이상	71	3.631	.642				3.531	.730			
종교	없음	164	3.447	.583	-1.259	.209		3.481	.755	-.160	.873	
	있음	150	3.534	.642				3.495	.717			
월 가계 수입	200 미만(a)	37	3.167	.591	3.995**	.004	a<b,c,d,e	3.506	.744	5.235***	.000	d,e<c,b
	200~300미만(b)	108	3.453	.605				3.685	.715			
	300~400미만(c)	62	3.525	.677				3.552	.700			
	400~500미만(d)	44	3.590	.495				3.238	.655			
	500 이상(e)	63	3.631	.587				3.250	.760			
혼인 상태	미혼	123	3.348	.649	-3.238**	.001		3.701	.751	4.225***	.000	
	기혼	191	3.580	.571				3.350	.694			
부양 부모	없음	149	3.492	.642	.095	.925		3.515	.734	.618	.537	
	있음	165	3.486	.587				3.463	.739			

*p<.05, **p<.01, ***p<.001

변수	범주	n	라이프스타일									
			외향적도전				물질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688	.614	-1.510	.132		3.660	.702	2.738**	.007	
	여자	205	3.804	.672				3.440	.663			
연령	30세 미만	48	3.743	.678	1.254	.290		3.458	.729	2.430	.065	
	30~39세	101	3.696	.681				3.633	.657			
	40~49세	111	3.858	.592				3.525	.686			
	50세 이상	54	3.716	.695				3.333	.660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735	.678	-1.631	.105		3.547	.703	1.456	.146	
	대학원졸업 이상	71	3.863	.553				3.413	.608			
종교	없음	164	3.717	.678	-1.329	.185		3.542	.693	.695	.488	
	있음	150	3.815	.624				3.488	.675			
월 가계 수입	200 미만	37	3.684	.740	1.623	.168		3.459	.787	.138	.968	
	200~300미만	108	3.731	.668				3.534	.663			
	300~400미만	62	3.854	.571				3.489	.715			
	400~500미만	44	3.613	.689				3.553	.646			
혼인 상태	500 이상	63	3.883	.611	-1.083	.280		3.523	.668	-.831	.407	
	미혼	123	3.712	.718				3.477	.710			
부양 부모	기혼	191	3.797	.608	-.383	.702		3.542	.667	.820	.413	
	없음	149	3.749	.675				3.550	.654			
	있음	165	3.777	.635				3.486	.711			

*p<.05, **p<.01, ***p<.001

변수	범주	n	라이프스타일									
			보수적가족					동료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842	.520	3.368**	.001		3.578	.479	-.651	.516	
	여자	205	3.620	.615				3.617	.571			
연령	30세 미만(a)	48	3.520	.663	4.453**	.004	a,d<c,b	3.691	.616	1.322	.267	
	30~39세(b)	101	3.800	.558				3.528	.553			
	40~49세(c)	111	3.762	.537				3.645	.465			
	50세 이상(d)	54	3.529	.640				3.581	.583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666	.601	-1.707	.089		3.585	.552	-1.130	.259	
	대학원졸업 이상	71	3.802	.551				3.667	.496			
종교	없음	164	3.730	.580	1.033	.303		3.597	.544	-.214	.831	
	있음	150	3.661	.605				3.610	.537			
월 가계 수입	200 미만(a)	37	3.464	.716	3.965**	.004	a,b<c,d,e	3.394	.428	4.086**	.003	a,d<b,c,e
	200~300미만(b)	108	3.616	.596				3.605	.594			
	300~400미만(c)	62	3.780	.524				3.696	.474			
	400~500미만(d)	44	3.704	.621				3.440	.485			
	500 이상(e)	63	3.885	.488				3.746	.548			
혼인 상태	미혼	123	3.616	.629	-1.956	.051		3.535	.592	-1.818	.070	
	기혼	191	3.749	.563				3.648	.501			
부양 부모	없음	149	3.643	.593	-1.551	.122		3.582	.557	-.662	.509	
	있음	165	3.746	.589				3.623	.526			

*p<.05, **p<.01, ***p<.001

변수	범주	n	라이프스타일				
			종교 및 봉사활동				
			평균	표준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2.253	.887	-1.498	.135	
	여자	205	2.406	.853			
연령	30세 미만(a)	48	2.000	.726	9.250***	.000	a,b<d
	30~39세(b)	101	2.213	.805			
	40~49세(c)	111	2.414	.790			
	50세 이상(d)	54	2.803	1.042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2.302	.871	-2.003*	.047	
	대학원졸업 이상	71	2.529	.832			
종교	없음	164	1.881	.581	-12.066***	.000	
	있음	150	2.869	.833			
월 가계 수입	200 미만(a)	37	2.259	.716	2.400*	.050	a,e<c
	200~300미만(b)	108	2.335	.874			
	300~400미만(c)	62	2.635	.921			
	400~500미만(d)	44	2.318	.906			
	500 이상(e)	63	2.187	.811			
혼인 상태	미혼	123	2.178	.821	-2.899**	.004	
	기혼	191	2.466	.878			
부양 부모	없음	149	2.275	.833	-1.525	.128	
	있음	165	2.424	.892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의 차이분석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사회복지사의 학력, 종교, 월 가계수입, 혼인상태, 부양 부모 유무는 통계적으로 부모부양부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3.610점으로 여자 평균 3.411점 보다 평균적으로 부모부양부담이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2.645$, $p<.01$).

사회복지사의 연령의 따른 부모부양부담에서 30세 미만이 3.597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3.413$, $p<.05$).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표본수	부모부양부담				
			평균	표준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610	.648	2.645**	.009	
	여자	205	3.411	.628			
연령	30세 미만(a)	48	3.597	.717	3.413*	.018	d<a,b
	30~39세(b)	101	3.577	.611			
	40~49세(c)	111	3.444	.626			
	50세 이상(d)	54	3.270	.613			
학력	대학 졸업 이하	243	3.461	.648	-.991	.322	
	대학원 졸업 이상	71	3.546	.615			
종교	없음	164	3.522	.622	1.199	.231	
	있음	150	3.435	.660			
월 가계 수입	200 미만	37	3.573	.611	1.504	.201	
	200~300 미만	108	3.429	.702			
	300~400 미만	62	3.413	.617			
	400~500 미만	44	3.627	.514			
혼인 상태	500 이상	63	3.480	.641	1.830	.068	
	미혼	123	3.562	.647			
부양 부모	기혼	191	3.427	.634	-.967	.334	
	없음	149	3.443	.590			
	있음	165	3.513	.684			

* $p<.05$, ** $p<.01$, ***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표 9>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 중 경제적 부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에서 여자 집단보다 남자 집단에서 신체적($t=3.323, p<.01$), 심리사회적($t=2.761, p<.01$) 부모부양부담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에 대한 응답 중 30세 이상 39세 미만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신체적($F=9.277, p<.00$) 부모부양부담을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30세 미만 집단이 심리사회적($F=4.277, p<.01$) 부모부양부담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에 대한 응답 중 미혼 집단에서 기혼집단 보다 신체적($t=-2.729, p<.01$) 부모부양부담을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양부모유무에서는 부양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신체적($t=-2.244, p<.05$) 부모부양부담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부담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표본 수	부모부양부담									
			경제적					신체적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188	.679	.956	.340		3.821	.648	3.323**	.001	
	여자	205	3.111	.675				3.563	.657			
연령	30세 미만(a)	48	3.291	.761	1.127	.338		3.680	.718	9.277***	.000	d<b
	30~39세(b)	101	3.087	.641				3.868	.588			
	40~49세(c)	111	3.105	.691				3.614	.641			
	50세 이상(d)	54	3.163	.627				3.305	.653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113	.684	-1.204	.230		3.639	.666	-.638	.524	
	대학원졸업 이상	71	3.223	.647				3.697	.660			
종교	없음	164	3.179	.650	1.147	.252		3.693	.645	1.122	.263	
	있음	150	3.092	.704				3.608	.684			
월 가계 수입	200 미만	37	3.184	.689	1.234	.296		3.729	.664	1.327	.260	
	200~300미만	108	3.054	.736				3.642	.695			
	300~400미만	62	3.115	.677				3.604	.685			
	400~500미만	44	3.125	.677				3.503	.722			
	500 이상	63	3.285	.584				3.777	.526			
혼인 상태	미혼	123	3.193	.707	1.172	.242		3.779	.649	2.729**	.007	
	기혼	191	3.102	.655				3.571	.663			
부양 부모	없음	149	3.137	.636	-.010	.992		3.564	.598	-2.244*	.026	
	있음	165	3.138	.713				3.732	.711			

*p<.05, **p<.01, ***p<.001

변수	범주	표본수	부모부양부담 심리사회적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822	.821	2.761**	.006	
	여자	205	3.559	.794			
연령	30세 미만(a)	48	3.819	.873	4.277**	.006	d<c,b,a
	30~39세(b)	101	3.775	.808			
	40~49세(c)	111	3.614	.771			
	50세 이상(d)	54	3.342	.777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630	.807	-.824	.411	
	대학원졸업 이상	71	3.720	.832			
종교	없음	164	3.693	.826	.965	.335	
	있음	150	3.604	.797			
월 가계수입	200 미만	37	3.806	.687	1.615	.170	
	200~300미만	108	3.592	.905			
	300~400미만	62	3.518	.836			
	400~500미만	44	3.606	.794			
	500 이상	63	3.820	.670			
혼인 상태	미혼	123	3.715	.835	1.133	.258	
	기혼	191	3.609	.797			
부양 부모 유무	없음	149	3.628	.760	-.457	.648	
	있음	165	3.670	.859			

*p<.05, **p<.01, ***p<.001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분석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사회복지사의 성별, 종교, 부양부모유무는 통계적으로 노후준비도에 대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복지사의 연령에서 50세 이상 집단이 평균 3.439점으로 30세 미만 집단의 평균 3.132점 보다 노후준비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나이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F=4.981, p<.01$).

사회복지사의 학력의 따른 노후준비도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이 평균 3.346점으로 대학 졸업 이하 집단에 평균 3.184점 보다 노후준비도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2.472, p<.05$).

월 가계수입에서 500만원 이상 집단이 평균 3.375점으로 200만원 미만 집단에 평균 2.971점 보다 노후준비도 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F=4.361, p<.01$).

사회복지사의 혼인상태에서 기혼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3.272점이 미혼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평균 3.142점 보다 노후준비도 수준이 높고, 미혼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기혼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2.313, p<.05$).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표본수	노후준비도				
			평균	표준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167	.502	-1.424	.155	
	여자	205	3.249	.482			
연령	30세 미만(a)	48	3.132	.415	4.981**	.002	a,b,c<d
	30~39세(b)	101	3.149	.451			
	40~49세(c)	111	3.218	.495			
	50세 이상(d)	54	3.439	.553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184	.486	-2.472*	.014	
	대학원졸업 이상	71	3.346	.486			
종교	없음	164	3.194	.478	-.999	.319	
	있음	150	3.250	.502			
월 가계 수입	200 미만(a)	37	2.971	.369	4.361**	.002	a<b,c,e
	200~300미만(b)	108	3.245	.450			
	300~400미만(c)	62	3.212	.506			
	400~500미만(d)	44	3.163	.466			
	500 이상(e)	63	3.375	.561			
혼인 상태	미혼	123	3.142	.449	-2.313*	.021	
	기혼	191	3.272	.509			
부양 부모 유무	없음	149	3.201	.515	-.673	.502	
	있음	165	3.239	.467			

*p<.05, **p<.01, ***p<.001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표 11>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 응답에서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에서 심리사회적($t=-2.535$, $p<.05$)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 응답에서 30세 미만 집단보다 50세 이상 집단에서 경제적($F=5.020$, $p<.01$), 신체적($F=9.397$, $p<.001$)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 응답에서 대학졸업 이하 집단보다 대학원졸업 이상 집단에서 경제적($t=-2.075$, $p<.05$), 심리사회적($t=-3.431$, $p<.01$)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월 가계수입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 응답에서 500만원 이상 집단이 경제적($F=10.477$, $p<.001$)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심리사회적($F=3.405$, $p<.05$)에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이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 응답에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기혼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경제적($t=-4.090$, $p<.001$)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종교, 부모부양유무에서 노후준비도 하위변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차이분석

변수	범주	표본수	노후준비									
			경제적			신체적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094	.677	- .888	.375		3.086	.633	- .164	.870	
	여자	205	3.163	.649				3.099	.646			
연령	30세 미만(a)	48	2.919	.609	5.020**	.002	a,b<c,d	3.011	.610	9.397***	.000	b,a,c<d
	30~39세(b)	101	3.038	.636				3.007	.602			
	40~49세(c)	111	3.235	.627				3.012	.630			
	50세 이상(d)	54	3.328	.732				3.500	.617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098	.647	-2.075*	.039		3.083	.623	- .570	.569	
	대학원졸업 이상	71	3.281	.682				3.132	.701			
종교	없음	164	3.128	.656	- .326	.744		3.045	.639	-1.429	.154	
	있음	150	3.152	.664				3.148	.640			
월가계 수입	200 미만(a)	37	2.621	.553	10.477***	.000	a<e	3.065	.533	.473	.755	
	200~300미만(b)	108	3.116	.647				3.096	.582			
	300~400미만(c)	62	3.184	.635				3.018	.664			
	400~500미만(d)	44	3.123	.612				3.110	.584			
	500 이상(e)	63	3.451	.609				3.172	.799			
혼인 상태	미혼	123	2.954	.647	-4.090***	.000		3.051	.587	- .966	.335	
	기혼	191	3.258	.640				3.122	.672			
부양 부모	없음	149	3.089	.690	-1.292	.197		3.146	.638	1.370	.172	
	있음	165	3.185	.628				3.047	.641			

*p<.05, **p<.01, ***p<.001

변수	범주	표본수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평균	표준 편차	t/F	p	Duncan
성별	남자	109	3.321	.539	-2.535*	.012	
	여자	205	3.487	.559			
연령	30세 미만	48	3.467	.531	.410	.746	
	30~39세	101	3.403	.542			
	40~49세	111	3.408	.566			
	50세 이상	54	3.489	.596			
학력	대학졸업 이하	243	3.372	.566	-3.431**	.001	
	대학원졸업 이상	71	3.625	.477			
종교	없음	164	3.411	.549	-.609	.543	
	있음	150	3.449	.566			
월가계수 입	200 미만(a)	37	3.227	.553	3.405*	.010	a,d<e,b
	200~300미만(b)	108	3.522	.540			
	300~400미만(c)	62	3.435	.558			
	400~500미만(d)	44	3.256	.449			
	500 이상(e)	63	3.503	.610			
혼인 상태	미혼	123	3.420	.579	-.230	.818	
	기혼	191	3.435	.543			
부양 부모 유무	없음	149	3.369	.558	-1.831	.068	
	있음	165	3.484	.551			

*p<.05, **p<.01, ***p<.001

4.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모가 노후준비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아래와 같이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와 노후준비도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r)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후준비도 중 신체적 측면은 연령($r=.203, p<.001$)과 라이프스타일($r=.485, p<.001$)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노후준비도 중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성별($r=.142, p<.05$), 학력($r=.191, p<.01$), 라이프스타일($r=.596, p<.001$)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관계를 확인하였다.

노후준비도 중 경제적 측면에서 연령($r=.212, p<.001$), 학력($r=.117, p<.05$), 월가계수입($r=.290, p<.001$), 혼인상태($r=.226, p<.001$), 라이프스타일($r=.451, p<.001$), 부모부양부담($r=.116, p<.05$)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1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2	.080										
3	-.006	.155**									
4	.121*	.238***	.093								
5	.004	.303***	.148**	-.016							
6	.059	.565***	.075	.154**	.538**						
7	-.090	-.046	.072	.015	-.090	-.070					
8	-.011	.106	.131*	.246***	.084	.131*	.052				
9	-.148**	-.169**	.056	-.068	.053	-.103	.055	.064			
10	.009	.203***	.032	.081	.047	.055	-.077	.485***	-.058		
11	.142*	.014	.191**	.034	.028	.013	.103	.596***	.031	.421***	
12	.050	.212***	.117*	.018	.290***	.226***	.073	.451***	.116*	.413***	.486***

*p<.05, **p<.01, ***p<.001

1=성별, 2=연령, 3=학력, 4=종교, 5=월 가계수입, 6=혼인상태, 7=부양부모 유무, 8=라이프스타일, 9=부모부양부담, 10=신체적 노후준비도, 11=심리사회적 노후준비도, 12=경제적 노후준비도

5.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후 준비도의 각 하위요인별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도의 하위 요인 중 경제적 측면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모형 1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9.490, 유의확률 $p=.000$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R=.594$ 이었으며, 모형 1의 설명력은 35.3%이다.

모형 1에서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중 연령($\beta=.128, p<.05$), 월 가계수입($\beta=.190, p<=.01$)이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과 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양부모유무($\beta=-.100, p<.05$)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도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양부모가 없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아진다.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beta=.253, P<.001$), 여가($\beta=.176, p<.01$), 동료관계($\beta=.184, p<.01$)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 여가,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부모부양부담이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3-1은 기각되었고, 연구가설 중 1-1과 2-1 채택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이 높을수록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계수 B	표준 오차	계수 β			공차	VIF	
(상수)	-.230	.426	-	-.540	.590	-	-	
일반적 특성	성별	-.091	.069	-.066	-1.321	.187	.879	1.138
	연령	.089	.043	.128	2.077*	.039	.578	1.732
	학력	.005	.077	.003	.066	.948	.924	1.082
	종교	.097	.077	.074	1.266	.206	.647	1.545
	가계수입	.094	.029	.190	3.198**	.002	.620	1.612
	혼인상태	-.031	.090	-.023	-.342	.733	.487	2.055
	부모유무	-.131	.064	-.100	-2.044*	.042	.922	1.085
라이프 스타일	건강	.272	.060	.253	4.572***	.000	.713	1.403
	여가	.158	.054	.176	2.918**	.004	.599	1.669
	도전	-.059	.060	-.059	-.991	.323	.621	1.611
	물질	.002	.049	.003	.050	.960	.836	1.197
	가족	.097	.064	.088	1.515	.131	.654	1.529
	동료	.224	.074	.184	3.027**	.003	.594	1.684
	봉사활동	.062	.047	.082	1.335	.183	.579	1.728
부모 부양 부담	경제적	.107	.064	.110	1.685	.093	.512	1.952
	신체적	-.077	.095	-.078	-.809	.419	.236	4.240
	심리사회 적	.072	.073	.088	.985	.326	.271	3.692

R=.594, R²=.353, 수정된 R²=.316, F=9.490, p=.000, Durbin-Watson= 1.801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0=남성, 1=여성), 학력(0=대학 졸업 이하, 1=대학원 졸업 이상)

종교(0=없음, 1=있음), 혼인유무(0=미혼, 1=기혼), 부양부모유무(0=없음, 1=있음)

2)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신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도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측면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형 2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16.818로 유의확률 $p=.000$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R=.701$ 이었으며, 모형 2의 설명력은 49.1%이다.

모형 2에서 사회복지사의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중 연령($\beta=.165$, $p<.01$), 혼인상태($\beta=.165$, $p<.01$)가 신체적 측면의 노후준비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과 혼인상태에 배우자가 있을수록 신체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beta=.615$, $p<.001$), 종교 및 봉사활동($\beta=.140$, $p<.05$)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관리와 종교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신체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부모부양부담이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신체적 부양부담($\beta=-.207$, $p<.05$)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양부모가 없을수록 신체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중 1-2, 2-2, 3-2 모두 채택 되었다.

<표 14>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신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모형2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66	.367	-	-.453	.651	-	-	
일반적 특성	성별	-.014	.059	-.010	-.232	.817	.879	1.138
	연령	.112	.037	.165	3.030**	.003	.578	1.732
	학력	.098	.066	.064	1.489	.137	.924	1.082
	종교	.064	.066	.050	.968	.334	.647	1.545
	가계수입	-.018	.025	-.037	-.696	.487	.620	1.612
	혼인상태	.216	.078	.165	2.773**	.006	.487	2.055
	부모유무	.081	.055	.063	1.470	.143	.922	1.085
라이프 스타일	건강	.643	.051	.615	12.513***	.000	.713	1.403
	여가	.038	.047	.044	.816	.415	.599	1.669
	도전	-.018	.052	-.018	-.347	.729	.621	1.611
	물질	.037	.042	.040	.879	.380	.836	1.197
	가족	.027	.055	.025	.493	.623	.654	1.529
	동료	.051	.064	.043	.793	.428	.594	1.684
	종교 봉사활동	.104	.040	.140	2.570*	.011	.579	1.728
부모 부양 부담	경제적	.094	.055	.099	1.709	.089	.512	1.952
	신체적	-.199	.082	-.207	-2.423*	.016	.236	4.240
	심리사회적	.074	.063	.094	1.178	.240	.271	3.692

R=.701, R²=.491, 수정된 R²=.462, F=16.818, p=.000, Durbin-Watson= 1.742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0=남성, 1=여성), 학력(0=대학 졸업 이하, 1=대학원 졸업 이상)

종교(0=없음, 1=있음), 혼인유무(0=미혼, 1=기혼), 부양부모유무(0=없음, 1=있음)

3)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도의 하위 요인 중 심리사회적 측면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모형3의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17.214로 유의확률 $p=.000$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R=.705$ 이었으며, 모형 3의 설명력은 49.7%이다.

모형 3에서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중 성별($\beta=-.117, p<.01$), 학력($\beta=-.113, p<.01$), 부모유무($\beta=-.091, p<.05$)가 심리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도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노후준비도가 높다. 또한 대학원 졸업 이상 보다 대학 졸업 이하가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 부모부양유무가 없을수록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beta=.180, p<.001$), 여가($\beta=.268, p<.001$), 동료관계($\beta=.334, p<.001$)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관리와 여가,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부모부양부담이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중 3-1, 3-2는 채택 되었지만 3-3은 기각되었다.

<표 15>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모형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계수 β			공차	VIF	
(상수)	.872	.317		2.748**	.006			
일반적 특성	성별	-.136	.051	-.117	-2.652**	.008	.879	1.138
	연령	-.008	.032	-.013	-.247	.805	.578	1.732
	학력	-.151	.057	-.113	-2.642**	.009	.924	1.082
	종교	.055	.057	.049	.962	.337	.647	1.545
	가계수입	-.004	.022	-.010	-.194	.846	.620	1.612
	혼인상태	.014	.067	.012	.204	.839	.487	2.055
	부모유무	-.102	.048	-.091	-2.128*	.034	.922	1.085
라이프 스타일	건강	.163	.044	.180	3.683***	.000	.713	1.403
	여가	.203	.040	.268	5.035***	.000	.599	1.669
	도전	.054	.045	.064	1.221	.223	.621	1.611
	물질	-.069	.037	-.085	-1.887	.060	.836	1.197
	가족	.093	.048	.099	1.947	.053	.654	1.529
	동료	.344	.055	.334	6.241***	.000	.594	1.684
	종교 봉사활동	.043	.035	.067	1.229	.220	.579	1.728
부모	경제적	.012	.047	.015	.257	.797	.512	1.952
부양	신체적	-.066	.071	-.079	-.928	.354	.236	4.240
부담	심리사회적	.013	.054	.019	.236	.814	.271	3.692

R=.705, R²=.497, 수정된 R²=.468, F=17.214, p=.000, Durbin-Watson=2.069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0=남성, 1=여성), 학력(0=대학 졸업 이하, 1=대학원 졸업 이상)

종교(0=없음, 1=있음), 혼인유무(0=미혼, 1=기혼), 부양부모유무(0=없음, 1=있음)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노년부양비가 사회적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빈곤에 노출되거나 공적 부조에 의지하게 되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2019)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와의 요인에 대한 차이를 종합해 본 결과, 연령, 학력, 월 가계수입, 혼인상태, 부양부모유무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연령, 월 가계수입, 부양부모 유무에서 노후준비도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고, 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부모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는 연령과 혼인상태 유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고, 미혼보다 기혼에서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는 성별, 학력, 부양부모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발생하였다. 남자 보다 여자가 심리사회적 측면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고, 학력은 대학졸업 이하 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부양부모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서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고, 준비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도와와의 관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도와와의 요인에 대한 차이를 종합해 본 건강, 여가문화, 동료관계, 종교 및 봉사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 여가, 부양부모 유무에서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에 관심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고, 여가문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는 건강과 종교 및 봉사활동 따라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고, 지속적인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수록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았다.

셋째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는 건강, 여가문화, 동료관계에 따라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가문화에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지고, 회사에서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

후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할수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할수록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및 여가문화, 동료추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주성과 최수일(2010), 최혜련(2012)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3) 부모부양부담에 따른 노후준비도와 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혜성·김미영, 2012; 정규형·박서영, 2014)와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부모부양부담에 따른 노후준비도와 의 요인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부모부양부담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미약한 영향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2. 제언 및 논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지만 부모부양부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도 연구를 위해 제주지역과 타 지역의 부모부양부담 영향요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부모부양부담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기존 선행연구의 가설을 뒤집는 것이다. 제주는 장수의 섬으로 노령에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제주 문화적 특수성이 부모부양부담을 감소시켰

고,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타 지역 사회복지사의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은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서 경제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건강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과 사내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야근, 주말 출근, 연차휴가 반납 등 과중한 업무와 직장상사의 눈치로 인해 개인의 여가시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근무환경 변화 및 여가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법정근로 시간이 지켜지고, 정시퇴근·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라이프스타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건강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건강한 노후준비를 위해 결혼장려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 없는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재원, 2012).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주지역 사회복지사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차이분석에서 미혼 집단 보다 기혼 집단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월 가계수입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 보다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결혼’을 통해 월 가계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경제적 노후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혼장려정책(행복주택,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지원 등)을 시행하여 많은 사회복지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옥·하규수. 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12): 121-144.
- 강신기·조정숙. 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 117-132.
- 강유진. 1997. “비동거 며느리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준. 2008.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희원. 2000. “실버타운 입주여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종형. 2008.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동배·정규형·이은진. 2012.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58: 325-352.
- 김미리. 2013.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계자산 구성비율과 재정만족도”.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회지」 26(3): 617-639.
- 김민정.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혼 직장남성 소비자의 외모가치와 외모관리 소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황덕순. 2017. “라이프스타일이 경제적, 건강,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20(3): 227-254.

- 김수영·이재정. 2010. “재가서비스 이용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양자의 연령집단별 차이”. 「사회복지정책」 37(2): 179-199.
- 김연선. 2015. “사회복지사의 노후생활인식과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 2015.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부담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1: 74-92.
- 김유정·김금순. 2004.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활간호학회지」 7(2) 127-139.
- 김윤정·최윤희. 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김익균·김인수·이형진·정용민·최윤신. 2008. 「노인복지론」. 경기도: 교문사.
- 김정표. 200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노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성·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김지년. 2015. “대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가정환경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인식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박효진. 2016.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7(7): 555-563.
- 류성봉. 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노후준비 및 직무만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회」 22(3): 53-66.
- 박문환. 1998.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체육 참여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아. 1997.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실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노년층 소비자행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권.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성준. 2016. “베이비부서세대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현. 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목적지 개발을 위한 제언”.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1997. “노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관한 연구: 의복 구매 관습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선. 2007. “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및 대책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30, 40대 직장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281-302.
- 변용찬·이민정·허수정·이승기·남기룡. 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부담과 정책과제」.
- 서성환. 1986. 「소비자행동론」. 서울: 박영사.
- 서소용·김명자. 1998. “머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서정숙. 2017.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중심으로”. 동방문화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희란·손선희.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 만족도,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10): 57-69.
- 송다영. 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3(1): 105-128.

- 신수진. 1993. “성인 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영. 2002. “노년층 소비자의 여가태도 및 활용의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술·홍석태. 2008.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287-299.
- 여미영. 2009.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병철. 2012. “베이비붐세대 남성 직장인들의 퇴직태도, 노후준비, 노년기사회참여 의향”. 한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연. 2016.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장애와 고용」 26(1): 153-172.
- 윤가현.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 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1): 75-90.
- 이기성. 2005.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순. 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172-193.
- 이남·한정란. 2017.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1): 151-171.
- 이성희. 200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1-9.
- 이유신. 2005. “중년기 남성의 생활불안과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2020. “베이비붐세대의 이중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실증분석: 가족갈등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의훈·신주영. 2004.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실버타운 세분화 연구”. 「한국노년학」 24(2): 1-20.
- 이재원. 201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9. “광주·전남 중장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춘희. 200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06.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이희경. 2010.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호·권미자. 2016. “시각장애노인의 노후준비 영향요인”. 「시각장애연구」 32(4): 93-115.
- 장대일. 2018.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하. 2014.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복지관 이용노인과 비이용 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원. 2008. “뉴실버세대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연구: 라이프스타일과 개인가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성·김미영. 2012.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 설계간의 관계성 탐색”. 「보건사회연구」 32(2): 206-231.
- 정규형·박서영. 2014.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115-147.
- 정미경. 2019. “중장년기 노화인지수준과 노화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령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순돌·전혜상·정주희. 2015.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6): 61-82.
- 정주원·조소연. 2015. “중장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19-33.
- 정진선. 2007. “30대 미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결혼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 2004.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65-82.
- 조추용·김양이·윤은경. 2019.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주현우. 2014. “사회복지사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주영·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2): 45-57.
- 최상일·강정규. 2012. “노후생활인식 및 준비도가 은퇴기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지」 30(2): 167-185.
-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수일·곽중형. 2007.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3): 334-340.
- 최혜련. 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19.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고령화 현황 및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7 한국의 직업정보」. 2017 KNOW연구보고서. 136.
- 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5-14.
- 한국노년학포럼. 2010. 「노년학 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건복지부.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5-14.

함영희. 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행위관련 인지·감정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lder. 1969. “The Science of Living”. New York: Doubleday & Company.

Bartos. R. 1980.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58(1): 140-148.

Caplan. G. & Killilea. M. 1976. “Support system and Mutual Help”. New York: Grune and stratton.

Duncan H. D. 1969. “Symbols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 5. 32-35.

Feldman, S. D., & Thielbar, G. W. 1975. “Life style: diversity in american society(2nd ed.)”. Boston: Little Brown & Co.

Han, G. H., Choi, H. J., Eun, K. S., Lee, J. H., Joo, S. H., & Kim, J. H. 2011.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NU Institute on Aging,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MetLife Korea Foundation.

Havighurst, R. J. & Albrecht, R. 1953.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Max Weber. 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winster Press 1. 305-306.

Moschis, G. P., Lee, E., & Mathur, A. 1997. “Targeting the mature marke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4): 282-293.

Neugarten, B. L.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Rowe, J. W., Kha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Workers'
Lifestyle and Burden on Parents' Support
in Jeju on Preparation for Older Age

Oh, In-Beo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This study aims to find desirable ways to prepare for retirement by identifying the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for social workers in Jeju and identifying the variables that affect it.

In the age of super-aging, those who are facing unprepared old age are exposed to various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a prior study on preparation for old age confirmed that social workers engaged in poor working conditions had difficulty preparing for stable retirement due to various factor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ior study, the lifestyle and parental support burden were selected among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eparation of social workers for their retirement, and the impact on their preparation for their retirement was examine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20 social workers working in Jeju using Co

nvenience sampling among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for two weeks from April 20 to May 3, 2020. For the final analysis, 314 copies were used except for 6 parts suspected of value as a samp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correlation, t-test, one-way distribution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ers in Jeju. It has been sh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ge, academic background, monthl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parental status.

Second, an analysis of the life-style preparation of social workers in Jeju showed positive effects on the lower levels of health, leisure culture, fellowship, religion and volunteer work.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by Kim Joo-sung, Choi Soo-il (2010), and Choi Hye-ryeon (2012).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ld age due to the burden of parents' support felt by social workers in Jeju was found to be weak or insignificant. The opposite of the previous study (Jeon Hye-sung, Kim Mi-young, 2012; Jung Kyu-hyung, Park Seo-young, 2014) that the burden of supporting parents affects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has been found. It was confirmed that Jeju's culture of working steadily without relying on children in old age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ld age by alleviating the burden of parents' support. Although there have been physical and weak effects on the burden of physical parent support, verification is need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Social workers also provided basic data for the stable design of retirement preparation for social workers by identifying the status of their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identifying variables that affect them on the premise that they could be eligible to receive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future as members of our society.

Key Words : Social Workers, Lifestyle, Burden on Parents' Support, Preparation for Older Age

Code ID			
---------	--	--	--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사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바람직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아주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조사자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오인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교수 남진열

I.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학 력	① 대학 졸업 이하(전문대학 포함) ③ 대학원 졸업 이상
4. 종 교	① 없음 ② 있음
5. 월 가계수입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 혼인 유무	① 미혼 ② 기혼
7. 부양부모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II. 다음 문항들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돈보다 건강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가 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면서 산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나 이벤트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취미 및 여가생활이나 문화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직업, 봉사, 종교, 컴퓨터, 운전 등)을 열심히 할 때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이가 들어도 일(직업, 봉사, 종교, 컴퓨터, 운전 등)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생에서 재산(돈,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람들이 가진 물질적인 소유물(재산, 자동차, 주택 등)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보다 많은 물질(재산, 자동차, 주택 등)을 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집안의 대소사는 가족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족, 친지들과 상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동료들이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 동창회, 직장 등의 모임에는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생활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종교 서적을 자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정기적인 종교 모임에 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들은 <부모부양부담>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매월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신체적 제약이 있을 때 부모님의 부양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신체적 문제가 있을 때 식사, 목욕, 용변, 취침 또는 집안에서 거동을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을 위해 쓰는 돈 이외에 부모님을 돌보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의 식사준비, 청소 등 집안일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나의 가계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 부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신체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는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만일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다면 짜증나고, 화가 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소요될 의료비에 대하여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문항들은 노후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인병에 대한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주, 흡연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노후의 건강 준비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7. 피곤하면 곧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늘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13.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두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노후의 취미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노후대책 보험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 외에도 매달 저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노후를 위해서 절약하며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노후의 생활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노후에 살 주택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노후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